2023. 9.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 관련 ⁵

공원여가사업과장 이 은 주 2133-9356 공원여가운영팀장 이 보 현 2133-9364 관련 누리집 서울의공원(parks.seoul.go.kr) 공원소식 - 새소식 게시판

세계기후행동의 날 보라매공원의 녹색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9.23(토) 보라매공원에서 녹색캠페인 축제 '기후위기극복! 공원행동특공대' 개최
-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와 문화공연, 플로깅, 새활용 체험부스 등
- 프랑스 'IN VIVO'와 '프로젝트 날다'의 수준높은 공중 공연 협연 '녹색지능'
- □ 서울시는 '세계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공원을 환경보호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는 녹색캠페인이 접목된 축제 '기후위기극복! 공원행동특공대' 를 9월 23일(토요일, 10시~18시)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다.
 -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2018년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운동 캠페인을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9월 24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으 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행된다.
- '기후위기극복! 공원행동특공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보라매공원 줍깅 활동과 자원순환 과정을 체험하는 워크숍 형태의 체험부스 및 다양한 분야의 전시, 환경 주제문화공연으로 구성된다.

- '보라매 줍깅 특공대'는 특공대장과 함께 하는 보라매 공원 플로깅 활동 으로 축제 당일 3회에 걸쳐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를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활동 후 체험형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 직접 새활용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업사이클 워크숍도 참여해볼 수 있다. 자원의 새활용과 재활용을 직접 해볼 수 있는 부스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현수막, 우산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패션제품,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주제로 3개의 전문 단체가 시민 참여 워크숍 형태로 시행한다. 아울러 폐기물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부스인 자원순환마켓도 운영한다.
- 예술가로서 환경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미술을 추구하는 단체 '그린레시피랩'에서 선보이는 **친환경 예술 전시**에서는 친환경 작업 과정을 거친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메 시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 이외에도 ▲식물과 함께 하는 디제잉 '그린다룸' 공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더 클라이머스의 '영원한 바다' 음악공연 ▲제로웨이스트 실천 책 '쓰레기책'의 저자 손영혜 작가의 북토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 □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특별한 공연 '녹색지능' 도 펼쳐진다. '녹색지능'은 프랑스 버티컬 퍼포먼스 공연단체 'IN VIVO'와 우리나라 공연단체 '프로젝트 날다'의 협연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기후위기, 지구, 인간에 대한 성찰을 생명의 상징인 나무를 소재로 공중 공연(버티컬 퍼포먼스)을 펼치는 수준 높은 예술 공연으로보라매공원 플라타너스길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연은 2회 진행되며 축제 하루 전인 9월 22일(금) 16시에 1회차, 축제 당일 9월 23일(토) 15시에 2회차 공연을 시행한다. 공연시간은 약40분으로 현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번 축제로 공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공원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축제개요 및 포스터 2부

붙임1 축제 개요

ㅇ 행 사 명 : 기후위기극뽁! 공원행동특공대

ㅇ 일 시 : 2023. 9. 22.(금) ~ 9. 23.(토)

ㅇ 대 상 지 : 보라매공원 (데크산책로 주변)

ㅇ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ㅇ 행사내용 : 공원에서 자원순환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기후 위기를 인식

하고 실천의 관심도를 증대하는 녹색캠페인 축제

- 녹색캠페인 축제

· 프로그램 1) 보라매공원 플로깅 캠페인_ 보라매 줍깅 특공대(1일 3회차)

· 프로그램 2) 자원순환 시민체험 부스, 기후위기 관련 전시

• 프로그램 3) 환경 관련 북토크, 음악 공연

- 환경 주제 예술공연

· 공 연 명 : Intelligence végétale_녹색 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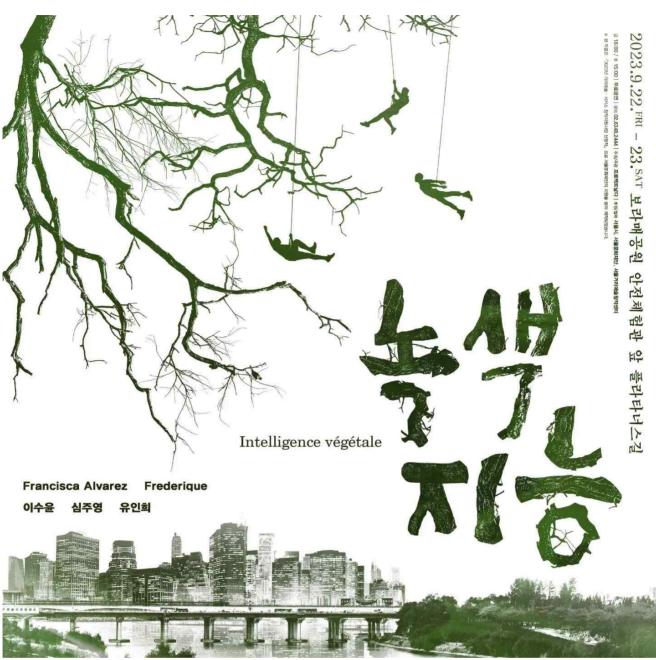
· 공연내용 : 생명의 상징인 나무를 소재로 기후위기에 대한 퍼포먼스

(프랑스 공연팀 'IN VIVO' + 공동창작 '프로젝트 날다')

구분	일 시		프로그램	
1일차	9.22.(금)	16:00~16:40	프랑스 공연팀 _ 녹색지능 (1회차)	
2일차	9.23.(토)	10:00~11:00	(체험부스) 플스틱베이커리	(문화공연) 10:30~11:30
		11:00~11:30	보라매줍깅특공대(1차) (줍깅+체험부스)	그린다룸(식물+DJING)
		11:30~12:00		(워크숍) 큐클리프 (15명) - 폐현수막 키링만들기
		12:00~13:00	(체험부스) 플스틱베이커리	(문화공연) 12:15~13:00 '쓰레기책' 저자 손영혜 작가
		13:00~14:00	(체험부스) 플스틱베이커리	(워크숍) 프라이드그린토마토 (15명) - 폐원두포대 가방만들기
		14:00~15:00	(체험부스) 플스틱베이커리	(문화공연) 14:15~15:00 더클라이머스(영원한 바다)
		15:00~16:00	(체험부스) 플라스틱베이커리	프랑스 공연팀 _ 녹색지능 (2회차)
		16:00~17:00	보라매줍깅특공대(2차) (줍깅+체험부스)	
		17:00~17:30	보라매줍깅특공대(3차) (줍깅+체험부스)	

※ 날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INTRODUCE

이 공연의 제목은 〈녹색지능〉입니다. 녹색지능(Inteligence Végétale)은 인공지능(Inteligence Artificial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Compagnie In Vivo의 안무가이자 본 공연의 안무가인 Fransica가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리를 들고 다니고, 대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빨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품 접시나 수저를 쓰지 않는 장례식장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남극의 빙하는 계속 작아지는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올 여름은 남아있는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걸까요?

〈녹색지능〉은 나무와의 아주 내밀한 연결지점을 찾기 위한 고요하고 작은 움직임부터 서로의 존재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격렬한 춤까지, 수직과 수평, 기준점을 파괴하는 공중에서의 모든 움직임, 버티컬 댄스를 통해 나무의 가장 먼 기억에 가 닿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지구에서 생존방법을 찾아내 살아온 존재로서의 나무에게, 깊게 뿌리내리고 넓게 숨쉬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ODUCTION COMPAGNIE IN VIVO 컴퍼티 인비보(Compagnie In Vivo)는 오래 전부터 함께 공연을 만들었던 프랑스의 바티컬댄스 안무가 프란시스카 알바레(Francisca Alvarez)와 프레데릭 베를르기 (Frédérique Beorlegui)가 2011년 버티컬 댄스장르의 더 심도있는 발전을 꿈꾸며 공동설립한 프랑스의 댄스컴퍼니입니다. 컴퍼니 인비보는 수직성과 공중에 매달린 무용수의 신체, 건축물 또는 구조물과 무용수의 몸이 만들어내는 관계 등에 대한 개인적이고 시적인 탐구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듭니다.